

MZ세대와의 소통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전주교도소, 2024 하반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 개최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25일 오전 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교정행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태명 전북대 법무대학원 교수)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회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안영삼 소장으로부터 교정행정 전반을 보고받고 최근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질서 확립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위원회 주요 의제는 “MZ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방안”에 대하여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MZ세대는 80년대 이후 2000년대생까지의 밀레니얼 세대와 디지털 세대를 일컫는 말로, 최근 공무원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이들에게 많은 공감과 배려 등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생활이 우선이고 직장생활은 차선이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으며, 자기주장이 강하고



전주교도소는 25일 오전 교도소 내 회의실에서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교정행정자문위원회회를 개최했다.

나눔과 배려에 다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직보다는 가족과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 성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MZ와의 소통을 통한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점심

시간에 간단히 햄버거 하나를 놓고 먹으면서 편하고 부담 없이 하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햄버거를 감싼 종이 가 갈색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명명됨)을 통한 상하 간 격의 없는 토론 문화 시행, MZ세대에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를 부여한 일처리 요구, MZ세대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기성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한 조직문화 형성, 창의적인 MZ세대의 의견 수용, 형식적인 소통의 날이 아닌 실제적이고 내실 있는 소통의 날 시행, 지시와 명령, 강제보다는 매뉴얼화된 업무처리, 디지털에 익숙한 MZ 세대의 문화를 활용한 카톡 활성화, MZ 세대에게 법과 제도에 위반되지 않은 상태의 공평한 휴가기간 등 조정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안건이 토론되고 논의되었다.

한편, 전주교도소 교정행정자문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교도소 이전 지역주민 대상 교정행정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정동우회 전주지부 회원과 교정시설 인근 주민 10명이 함께 새만금 개발지역의 발전 사항을 함께 참관하여 서로 흥금을 터놓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교정시설 인근 쓰레기 등 주변 환경 정화 활동 전개, 인근 주민에게 교도작업 제품 지원 등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교정시설 신축 이주지 시설 건축 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신축 등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만호 기자



비전대 고민석 교수 등, 보건의로 학술대회 '우수'

전주비전대학교 보건의로경영학과 고민석 교수와 최연희 학생이 22일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개최된 2024년도 보건의로산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부문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민석 교수는 최연희 학생은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이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건강행동의 매개효과'라는 논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정보이해능력, 건강행동, 건강관련 삶의 질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건강정보이해능력은 건강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정보이해능력과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에서 건강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희 학생은 2020년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보건의로경영학과 조교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석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장은성 기자



남원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가구 요리교실 운영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2일 드림스타트 이용 가구 중 30가구를 선정,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따뜻한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이번 요리교실은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주조자 유정이 조리학원장의 진행으로 15가구의 양육자가 4가지(짜두기, 영양 멸치볶음, 진미채 볶음, 돈가스) 메뉴를 직접 만들어 한 부모, 조손가정 15가구에 나눔을 실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요리교실은 유정이 원장의 강사로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식 조리과 더불어 위생·안전에 대한 기본교육도 병행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총력



무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용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총14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명의 부상자와 약 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주의와 실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125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점검 △화목보일러 전용 안전시설 설치주택 안전관리 모니터링 △화목보일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화목보일러 및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신평동 지사협,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실시

김제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7가정에 각 300장씩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탄나눔봉사는 김제가족사랑요양병원 효도리사회사업단과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최희길)과 위원 등 총 4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김제 가족사랑요양병원 박진만 이사장은 “임직원들의 온정 가득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통해 작지만 희망과 행복을 나누고 싶었다”며 “아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활동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다양한 실무 역량·연구 경험 쌓을 것”

전북대 정운하 석사과정생,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에 선발

전북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정운하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오주원)이 ‘2024년도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에 선발됐다고 전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산학장학생 제도는 석유·가스 자원개발 관련 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국내 자원개발 업계의 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정운하 석사과정생은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에서 파견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을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ИTP)의 지원을 받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캠퍼스 웰컴연구소에서 ‘자원공학 및 공간정보 자료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딥러닝 기술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석사과정생은 ‘유타 FORCE 지열발전 부지의 3차원 탄성과 전파형역산 실증 연구’를 주제로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에서 학생 구두발표 우수상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전북대학교 지구물리컴퓨팅 연구실과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가 함께 수행한 국제공동 연구의 성과다.

정운하 대학원생은 “산학장학생 선발을 통해 다양한 실무 역량과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기쁘다”

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육상 탄성 탐사와 탐사자료 처리 및 영상화 기술을 추후 국내에서 추진될 지열발전 부지 선점과 사용후 핵연료 심층처분 유망지 선정 및 관리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육상 탄성과 탐사 및 영상화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군산자양중, 역사 기록물 전시회 성황리 마무리

학교 50여 년 역사 담긴 기록물 총 68종 선보여

군산자양중학교(구 옥구서중학교)는 지난 20~24일 5일간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역사 기록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록물 전시회는 당초 3일간 전시 예정이었으나 학부모와 재학생, 지역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2일 연장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산자양중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각종 행사 모습과 교육활동이 담긴 사진첩과 구 옥구서중학교 관인, 각종 상패류 등 학교 50여 년 역사가 담긴 기록물 총 68종을 선보였다.

군산자양중학교가 개교한 1971년 학생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비롯해 체육대회와 새마을운동, 농촌 봉사활동 등 당시 시대상과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황인영 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군산자양중학교의 역사를 기념하며 학교 공동체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시회를 관람한 박기석 총동창회장은 “중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학교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황인영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6회 졸업생인 군산소방서 군산여성의용소방대 서영희



대장은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사용된 기록물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이관, 관리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 월호마을 주민과 소통모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에서는 최근 산서면 월호마을(이장 최정규) 주민들과 함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웃가웃 마을라디오’ 주민소통모임을 가졌다.

‘이웃가웃 마을라디오’는 30가구 미만의 과소와 위기마을의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체 기능 회복·강화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 라디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주요 정보제공, 이웃들의 소식 전달 등을 통해 마을 주민들간의 관계형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이웃가웃마을라디오 소통모임’은 한마을이 삼박마늘과 월호마을 2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위 아래 마을주민들이 함께 모여 주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월호마을(산서면) 최정규 이장은 “이번 소통모임은 주민들이 함께 만든 모임으로 마을에서 음식과 고기를 준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금동,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8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재단과에서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가스 사용 안전교육 △화재 예방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낙상사고 예방 교육 △교통안전 교육 △노인 자살 예방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알고 그에 적절한 대응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 실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주민자치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주민자치위원 20여명, 지역발전협의회회원 10여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직접 심고 길러 담은 양념과 함께 버무린 배추 600여 포기과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후원한 생필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의 소외계층과 독거노인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달하여 훈훈함을 자아냈다. /김제=곽노태 기자